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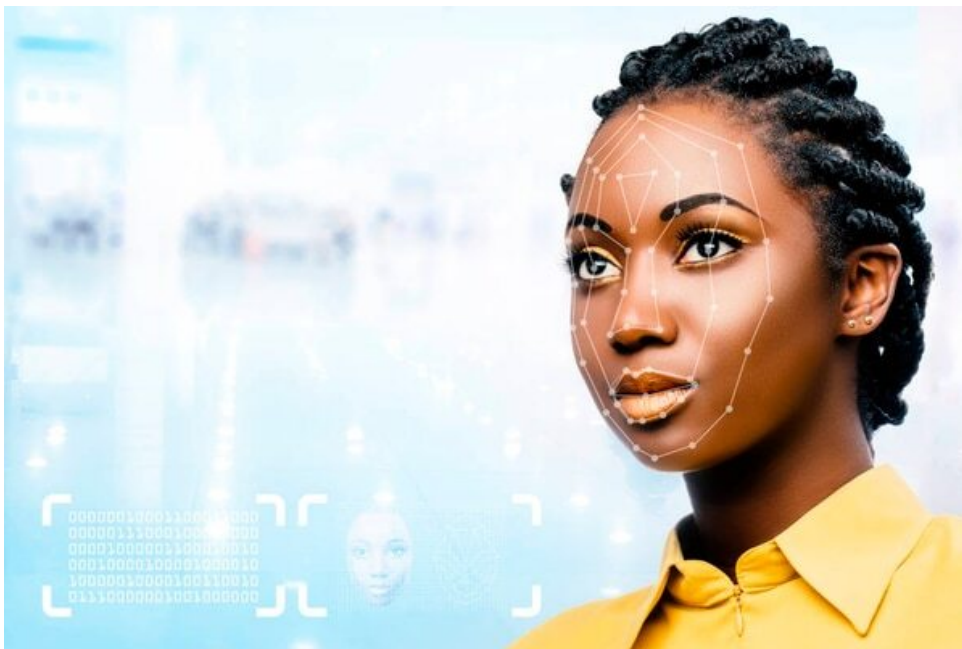


## 위장침투한 러軍 딱 걸렸어, 美스타트업이 우크라이나에 준 이 기술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입력 2022.03.14. 08:25 수정 2022.03.14. 09:11

[김성민의 실벨 레이더]

공항이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경찰과 정보기관 등에 점차 적용되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의 반대에 부딪히는 안면 인식 기술이 전쟁터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미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안면인식 기술 작동 모습을 구현한 이미지 컷.

로이터는 1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지난 토요일부터 미국 테크 기업 클리어뷰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술을 위장 침투하는 러시아군을 식별하고, 사망자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미 스타트업 클리어뷰가 우크라이나에 자사 얼굴 검색 엔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형식”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테크 기업에 요청한 도움에 클리어뷰가 화답한 모양새”라고 했다.

### ◇위장한 러시아군 안면인식으로 식별

미국에서 2017년 설립된 클리어뷰는 인터넷,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진 100억장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클리어뷰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SNS인 브콘택테에서 수집한 사진을 활용한다.

호안 톤 탕 클리어뷰 CEO는 “우리는 러시아 SNS인 브콘택테의 100억개 이상의 사진 DB 중 20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DB를 통한 안면인식은 지문인식보다 더 쉽게 사망자를 식별한다. 얼굴에 손상이 있어도 작동한다”고 밝혔다.

전쟁에서 안면인식 기술은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소와 연락처 등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안면인식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안 톤 탕 클리어뷰 CEO는 “안면인식 기술이 가족과 헤어진 난민을 재결합하고, 러시아 요원을 식별하고, 정부가 올리는 전쟁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CTV에 찍힌 영상에서 안면 인식하는 원리



## 글로벌 안면 인식 시장 규모

연평균 17.2% 성장

단위: 달러

자료=마켓앤마켓츠

2020년  
38억7200만2025년  
85억7500만

## 글로벌 안면 인식 시장의 산업별 시장 규모 단위:달러

자료=마켓앤마켓츠



## 안면 인식 기술 활용 사례

미 메이시스 백화점,  
애플스토어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안면 인식해 이전 절도  
범죄 유무 확인. 부정행위와 도난 방지에 활용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놀리나마을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 안면 인식해  
방법에 활용일본 나리타 ·  
하네다 공항여행객이 여권이나 항공권을 보여주지  
않아도 안면 인식으로 보안 검색대 통과

중국 텐센트

야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을  
안면 인식을 해, 미성년자일 경우 접속 차단미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산 곳곳에 설치된  
800여대 카메라로 실시간 화재 감시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그래픽=이철원

◇“잘못 작동하면 민간인 사망으로 이어질수도”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을 전쟁에 도입하면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직 이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오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의 시민단체 감시기술관리프로젝트의 알버트 폭스 찬전무이사는 “안면인식 불일치는 민간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의의 기술이 역효과를 일으키고,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크 업계에선 데이터 수집의 불법성, 사생활 침해 문제 등에 부딪힌 안면인식 기술이 전쟁터를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을까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했고, 영국의 국가 데이터 감시 단체는 클리어뷰AI가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23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던 테크 기업들도 속속 관련 기술 개발을 중단했다. IBM은 2020년 6월 “대량 감시,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과 자유 침해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에 반대한다”며 “범용 IBM 얼굴인식 또는 분석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해 “안면인식 기술을 규제할 법이 마련될 때까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경찰서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마존도 2020년 안면인식 기술 판매를 1년 유예했고, 올해부터 다시 공급을 시작했다.